

한국사

1. 밑줄 친 '이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 시대의 문화 유적으로는 고인돌을 비롯하여 돌널무덤, 돌무지 무덤, 집자리 등이 있다. 또한 이 시대를 대표하는 민무늬 토기는 빗살이 적갈색을 띠고 있으며 형태가 매우 다양한 점이 특징이다.

- ① 주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생활하였다.
- ② 방추를 이용하여 베나 옷감을 짜기 시작하였다.
- ③ 가까운 사람을 함께 매장하는 순장 풍습이 있었다.
- ④ 곡식의 이삭을 자르기 위한 반달형 돌칼이 사용되었다.
- ⑤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 주로 빗살무늬 토기를 이용하였다.

2. 다음 법이 있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살인한 자는 죽이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 도둑질한 자는 열두 배로 갚으며, 남녀가 음탕하거나 부인이 투기하면 모두 죽인다. 특히 투기를 미워하여 죽이고 나서 시체를 수도의 남쪽 산 위에 두고 썩힌다. 여자 집에서 그 시신을 가져가려면 소나 말을 바쳐야 내준다.

- 『삼국지』 위서 동이전 -

- ① 천군이 나라의 제사를 주관하였다.
- ② 한 무제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였다.
- ③ 호랑이를 신으로 섬기고 제사를 지냈다.
- ④ 왕과 지배층이 국동대혈에 모여 제사를 지냈다.
- ⑤ 호민이라는 지배층과 하호라는 피지배층이 있었다.

3. 다음 ㄱ~ㄹ을 제작한 시기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ㄱ. 첨성대
ㄴ. 광개토왕릉비
ㄷ.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ㄹ. 정혜공주묘

- ① ㄱ→ㄴ→ㄷ→ㄹ
- ② ㄱ→ㄴ→ㄹ→ㄷ
- ③ ㄴ→ㄱ→ㄷ→ㄹ
- ④ ㄴ→ㄱ→ㄹ→ㄷ
- ⑤ ㄷ→ㄴ→ㄱ→ㄹ

4. 고려의 전시과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급한 토지의 권리는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이였다.
- ② 개정을 거듭하면서 등급별 지급 액수는 조금씩 늘어났다.
- ③ 전지(농지)뿐 아니라 땔감을 채취하는 시지도 함께 지급하였다.
- ④ 5품 이상의 고위 관리에게는 공음전을 따로 주는 경우가 있었다.
- ⑤ 토지를 받은 사람이 퇴임하면 나라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5. ㉠의 종교 또는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죽은 사람 앞에 술과 음식을 차려 놓는 것은 ㉠에서 금하는 바입니다. 살아 있을 동안에도 영혼은 술과 밥을 받아 먹을 수 없거늘 하물며 죽은 뒤에 영혼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육신의 입에 공급하는 것이요, 도리와 덕행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비록 지극한 효자라 할지라도 맛 좋은 것이라 하여 부모가 잠들어 있는 앞에 차려 드릴 수 없는 것은 잠들었을 동안은 먹고 마시는 때가 아닌 까닭입니다. 잠시 잠들었을 때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영원히 잠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 정하상, 『상재상서』 -

- ① 『동경대전』을 기본 경전으로 삼았다.
- ② 『주자가례』에 따라 의례를 실천하였다.
- ③ 갑오개혁 이후 신앙의 자유를 얻었다.
- ④ 임술 농민 봉기의 사상적 뒷받침이 되었다.
- ⑤ 황사영 백서 사건을 계기로 심한 탄압을 받았다.

6. 다음 주장을 한 인물이 쓴 글로 옳은 것은?

대체 천자는 어찌하여 있게 되었는가? 다섯 가(家)가 하나의 인(隣)이 되는데, 다섯 가의 추대를 받은 자가 인장(隣長)이 될 것이며 …… 다섯 인이 일 리(里)가 되는데 다섯 인의 추대를 받은 자가 이장(里長)이 될 것이며 …… 여러 현의 우두머리들의 공동 추대를 받은 자가 제후가 될 것이며, 제후들의 공동 추대를 받은 자가 천자가 될 것이므로, 천자란 무릇 군중이 밀어서 그 자리에 오른 것이다.

- ① 국가는 한 집의 재산을 계산하여 토지 몇 부(負)를 한 호의 영업전으로 한다.
- ② 비유하건대, 재물은 대체로 샘과 같다. 퍼내면 차고, 버려 두면 말라 버린다.
- ③ 30호 정도를 1여(閭)로 만들고, 여민(閭民)이 여(閭)의 토지를 공동으로 경작하도록 한다.
- ④ 천체가 운행하는 것이나 지구가 자전하는 것은 그 세가 동일하니, 분리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
- ⑤ 정통은 단군·기자·마한·신라 문무왕·고려 태조를 말한다.

7. 다음 사건을 시기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ㄱ. 이성계가 ‘4불가론’을 왕에게 건의
 ㄴ. 공양왕 즉위
 ㄷ. 원으로부터 쌍성총관부 탈환
 ㄹ. 과전법 공포

- ① ㄱ → ㄴ → ㄷ → ㄹ
- ② ㄱ → ㄷ → ㄹ → ㄴ
- ③ ㄴ → ㄱ → ㄷ → ㄹ
- ④ ㄷ → ㄱ → ㄴ → ㄹ
- ⑤ ㄹ → ㄷ → ㄱ → ㄴ

8. 밑줄 친 ‘원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만리 출정에서 성공하는 것은 세상에 드문 일이거늘
 나그네 마음은 어찌하여 다시 긴 한숨인가.
 이번 원정은 심하(深河)의 전쟁과 달라
 김공(金公)*이 죽어 돌아오지 못함이 오히려 부럽도다.
 - 신류 장군이 전쟁 후에 지은 시 -
 * 김공(金公): 강홍립과 함께 심하 전투에 참여했다가 목숨을 잃은 김응하(1580~1619)를 일컫는다.

- ① 청의 요구로 조선의 조총 부대가 동원되었다.
- ② 4군과 6진을 개척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③ 삼전도에서 인조가 항복의식을 하였다.
- ④ 임경업이 백마산성에서 항전하였다.
- ⑤ 조명 연합군이 평양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9. 밑줄 친 ‘화의(和議)’의 결과로 옳은 것은?

성종이 서경(西京)으로 가서 안북부(安北府, 안주)까지 나아가
 머물렀는데, 거란(契丹)의 소손녕(蕭遜寧)이 봉산군(蓬山郡)을
 공격하여 파괴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더 가지 못하고 돌아왔다.
 서희(徐熙)를 보내 화의(和議)를 요청하니 …….
 - 『고려사』 -

- ① 북방 지역에 천리장성을 쌓기 시작하였다.
- ② 압록강 인근까지 영토가 확장되었다.
- ③ 퇴각하는 거란군을 귀주에서 크게 격파하였다.
- ④ 거란이 사신과 함께 낙타 50필을 보내왔다.
- ⑤ 거란은 내원성을 쌓아 고려와 송의 교통로를 차단하였다.

10. ㉠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왕이 ㉠이/가 자주 강역을 침략하는 것을 근심하여 수
 나라에 군사를 요청하여 ㉠을/를 정벌하고자 원광(圓光)
 에게 명하여 결사표(乞師表)를 짓게 하였다. 원광이 아뢰기를,
 “자기가 살고자 남을 죽이는 것은 승려가 할 행동이 아닙니다만,
 저는 대왕의 영토에서 살며 대왕의 물과 풀을 먹고 있으므로
 감히 명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곧 결사표를
 지어 올렸다.
 - 『삼국사기』 -

- ① 단양에 적성비를 세웠다.
- ② 『신집』이라는 역사서가 있었다.
- ③ 황초령, 북한산 등에 순수비를 세웠다.
- ④ 평양성을 공격해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 ⑤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었다.

11. 밑줄 친 ‘왕’이 추진한 일로 옳은 것은?

원년 2월에 왕이 명하기를, “옛날에 소금을 전매하던 법은 국
 가 재정에 대비하려는 것이었다. 본국의 여러 궁원·사사(寺社)와
 권세가들이 사사로이 염분(鹽盆)을 설치하여 그 이익을
 독점하고 있으니 국가 재정을 무엇으로써 넉넉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 소금을 쓰는 자는 모두 의염창에 가서 사도록
 하고, 군현 사람들은 모두 본관의 관사에 나아가 포를 바치고
 소금을 받도록 하라. 만약 사사로이 염분을 설치하거나 몰래
 서로 무역하는 자가 있으면 엄히 죄로 다스려라.”고 하였다.
 - 『고려사』 -

- ① 원의 수도에 만권당을 설치하였다.
- ② 광덕, 준풍 등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③ 급전도감을 설치하고 녹과전을 지급하였다.
- ④ 신돈을 등용하고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 ⑤ 전국에 12목을 두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12.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을/를 필두로 김사용, 우군칙, 김창시와 장사인 홍총각, 부유한 상공업자인 이희저 등이 반란군의 지휘부를 구성하였다. 반란군은 정주성에 들어가 4개월 가까이 관군과 대치하다가 성이 함락되면서 진압되었다.

- ① ‘임술민란’이라고도 불린다.
- ② 명화적(明火賊)의 활동을 계승하였다.
- ③ 교조(敎祖)의 신원(伸冤)을 요구하였다.
- ④ 서북 지방에 대한 차별의 타파를 내세웠다.
- ⑤ 삼정이정청 설치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13. 다음 상황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신축·임인년 이래로 조정에서 노론, 소론, 남인의 삼색이 날이 갈수록 더욱 사이가 나빠져서 서로 역적이란 이름으로 모함하니 이 영향이 시골에까지 미치게 되어 하나의 싸움터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서로 혼인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당색끼리는 서로 용납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 이중환, 『택리지』 -

- ① 비변사의 기능이 약화되었다.
- ② 외척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였다.
- ③ 국왕을 중심으로 탕평책이 시행되었다.
- ④ 경신환국 이후 특정 붕당의 득세 현상이 강해졌다.
- ⑤ 기축옥사 및 건저의 사건으로 붕당 간 대립이 심화되었다.

14. 다음 주장을 편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존주(尊周)*는 존주 그대로이며, 이적(夷狄)**은 이적 그대로이다. 주나라와 이적은 반드시 분별이 있다. 이적이 중화를 어지럽혔다 하여 주나라의 오랜 전통마저 배척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 청나라가 천하를 차지한 지 1백여 년이 지났다. ……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오랑캐라 하고 중국의 법마저 함께 폐기해 버린다면 크게 옳지 못하다. 진실로 백성에게 이롭다면 그 법이 비록 오랑캐에게서 나왔다 하더라도 성인은 장차 취할 것이다.

- 「존주론」 -

* 존주(尊周): 문명화된 중화 ** 이적(夷狄): 오랑캐

- ① 지전설을 제기하였다.
- ② 여전론을 제안하였다.
- ③ 『북학의』를 저술하였다.
- ④ 위정척사운동을 전개하였다.
- ⑤ 화폐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15.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일제는 회사령을 공포하여 일본 자본의 과도한 조선 진출을 막는 동시에 조선인 자본가의 성장을 막고자 하였다.
(나)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제는 전쟁 물자의 효율적 생산과 안전한 수송을 위하여 조선 공업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 ①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었다.
- ② 학도지원병제를 실시하였다.
- ③ 물산장려운동이 전개되었다.
- ④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광복군을 결성하였다.
- ⑤ 중국에서 조선의용대가 결성되었다.

16. 다음의 내용을 주장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만국공법」 제2장에 따르면 “한 나라는 반드시 국토를 독점적으로 관할하여 통제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국가는 토지, 물산, 민간 재산 등을 관리할 권한을 가지며, 다른 나라는 이 권리를 함께 가질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는 비록 토지를 관할하는 전권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이를 타국에게 매각할 수는 없다. 이는 한 나라가 공유하는 권리지 한 사람이 사유하는 권리가 아니다. ……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일본 공사의 도리에 어긋난 행동은 고금에 없었으며, 공법을 살펴보면 모든 일이 다 어그러지고 위배되어 그 비루함이 만 배나 더 심합니다.

- 『황성신문』, 1904. 7. 23. -

- ① 민족 유일당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②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반대하였다.
- ③ 양전 사업을 시행하여 지계를 발급하였다.
- ④ 국채를 갚아 일본의 경제적 간섭에서 벗어나려 하였다.
- ⑤ 외국 공사관에 문서를 보내 일본의 토지 침탈을 규탄하였다.

17.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온달이 왕에게 아뢰었다. “신라가 우리 한강 북쪽 땅을 빼앗아 군과 현으로 만들었으므로, 백성들이 원통하여 언제나 부모의 나라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대왕께서 불초한 신을 어리석게 여기지 마시고 군사를 주신다면, 한번 나가 싸워서 반드시 우리의 땅을 회복하겠습니다.” 왕은 이를 허락했다.

- 『삼국사기』 -

(나) 역적의 우두머리 흠돌, 홍원, 진공 등은 지위가 재능으로 오른 것이 아니고 관직이 실로 은혜로써 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근신하여 부귀를 보전하지 못하였다. 지금 이미 요망한 무리들이 말끔하게 제거되어 먼 곳이나 가까운 곳 모두에 걱정거리가 없게 되었으니, 불러 모은 군사와 말들을 마땅히 신속하게 돌려보내라.

- 『삼국사기』 -

- ① 진흥왕이 북한산 순수비를 세웠다.
- ② 장문휴가 군사를 이끌고 등주를 공격하였다.
- ③ 장수왕이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 ④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군에게 목숨을 잃었다.
- ⑤ 을지문덕이 수의 군대를 살수에서 크게 무찔렀다.

18. (가), (나)의 헌법 개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구분	개헌 연도	주요 내용
(가)	1962	대통령 직선제 시행, 헌법 개정 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 실시, 헌법재판소 폐지
(나)	1987	직선제를 통한 5년 단임 대통령제 시행, 비상조치권 및 국회해산권 폐지, 헌법재판소 부활

— < 보 기 > —

ㄱ. (가)는 ‘발췌 개헌’이라고도 한다.
ㄴ. (가)에서는 국회를 단원제로 하였다.
ㄷ. (나)는 6월 민주 항쟁을 계기로 개정하였다.
ㄹ. (나) 개헌은 국가 재건 최고 회의에서 주도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9. 다음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 세력은 이념의 차이로 인하여 한국광복군에 편입되지 못하였다.
ㄴ. ‘한국광복군 행동 9개 준승’으로 인하여, 한국광복군은 해방 때까지 중국 군사 위원회의 지휘를 받아야만 했다.
ㄷ.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12월, 일본에 정식으로 선전 포고를 하였다.
ㄹ. 일본의 항복 선언 직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을 중심으로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 ① ㄴ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ㄷ, ㄹ

20. 다음 주장을 발표한 기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보통선거제를 실시하여 정권을 고르게 하고, 국유제를 채용하여 이권을 고르게 하고, 공비 교육으로 학권을 고르게 하며, 국내외에 대하여 민족자결의 권리를 보장하여 민족과 민족 및 국가와 국가의 불평등을 없앨 것이며, 이를 국내에 실현하면 특권 계급이 곧 소멸하고, 소수 민족이 침략당하는 일을 모면하고,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권리가 고르게 되어 높낮이가 없어지니, 동족과 이민족에 대하여 또한 이렇게 한다.

- ①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하였다.
- ②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을 강령으로 활동하였다.
- ③ 중국 팔로군과 화북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였다.
- ④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조사하고 지원하였다.
- ⑤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